



Q 폐결핵은 대체로 잘 먹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고기류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고기류가 오히려 안 좋으니 식물성단백질로 섭취하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A 폐결핵 치료 시 특별히 좋다고 알려진 식품은 없습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둘 다 골고루 드시면 되고 단백질 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적당하게 골고루 잘 섭취하시면 됩니다. 좋을 것이라고 짐작해서 특정한 식품 한 가지만 너무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Q 어머니께서 보건소에서 결핵판정을 받아 2개월 정도 약을 복용중입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몇 일 전부터 어머니께서 기억을 깜빡하시고 이런저런 걸 혼동하시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핵약 부작용으로 정신이상도 보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관찰아지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폐결핵 치료약으로 기억력 감퇴, 우울 등 정신훈경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아주 드물게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정신훈경계 상황의 가능성이 없다면 담당의사와 상의하셔서 용량 조정 또는 처방변경 등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www.knta.co.kr) 결핵 상담실로 결핵에 관한 궁금증을 문의하시면
결핵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 결핵약을 복용하기 시작한지 5일이 되었는데,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아침 8시경 공복에 결핵약을 복용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 약
먹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걱정이 됩니다. 크게 문제가 될까요?

A 결핵약을 복용할 때 매일 잘 복용한다면 전후 30분 내외로 시간 변동이 있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빠짐없
이 복용하는 것이 결핵치료에서 아주 중요하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
니다.

Q 생후 40일된 아기인데 아이나로 3개월 예방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체중
4kg, 약용량40mg, 엑스레이 상 소견 없고 결핵반응검사 음성입니다. 가
루약을 물에 타서 배고플 때쯤에 먹이는데 먹고 나서 20분 정도 지나면 넘어갈 듯이
웁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분유에 타서 먹이면 좀 니울
거 같은데 의사선생님은 공복에 물과 같이 먹이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아기가 공복에 약을 복용하기 힘들다면 분유를 조금만 먹이고 30분 내지 1
시간 후 복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어하면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약
용량을 약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문의 내용만으로는 확실치 않으나 처음에 음성이
었으므로 약복용 3개월 후 다시 결핵반응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약복용을 종결
할지 연장치료를 할지 결정하는 경우인 것 같으므로 담당의사에게 다시 문의해 보시
기 바랍니다.

Q 흉부 엑스레이에서 결핵이 의심되어 약을 시작하였습니다. 약을 먹는 중에 여러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검사결과상 객담 도말 검사에서 음성 배양이 음성인 나오다면 6개월의 약을 채우지 않더라도 결핵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약을 중단할 수 있나요?

A 객담 검사상 균음성이라 하더라도 치료 전이나 치료 중에 흉부 X-선 등 임상적으로 폐결핵에 합당한 소견이라면 예정된 기간 동안 치료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도말 및 배양에서 균음성인 폐결핵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치료 전에 폐결핵으로 의심되었는데 추후에 결핵이 없이 폐렴이나 종양 등으로 판명되었다면 조기 종결할 수는 있습니다.

Q 약 복용 3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보통 알려진 증상들 외에 저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한 손떨림, 탈모 등등이 그것인데요. 결핵약과 상관이 있을까요?

A 문의하신 증상들은 드물게 나타나는데, 우선 결핵치료 중 떨림현상은 아이나라는 약에 의한 말초 신경병증의 형태로 아주 드물게 올 수 있으며 피리독신을 고용량으로 쓰면 완화되기도 합니다. 호전이 안 되면서 건디기 어려우면 처방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탈모는 특정한 약 때문에 초래되는 것 같지는 않으며 결핵치료 중에 드물게 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치료종결 후 대부분 다시 발모되므로 계속 치료하면서 경과를 보고 너무 심하면 이차약제로 변경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Q 병원에서 6개월 치료 후 완치 판정 받고 회사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지 재발에 대한 걱정이 심합니다. 치료 종결한 지 2달 반 정도 됐는데, 제가 너무 의식을 해서 그런지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체중은 치료 전보다 8kg 정도 늘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아서 반 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환경도 걱정이 됩니다.

A 폐결핵은 적절한 기간 동안 적절한 처방으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결핵 약물 치료를 잘 받았다면 재발률이 아주 낮으므로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물론 치료를 잘 받았더라도 때론 마음이 불안할 수 있겠지만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면 실제로 재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